

사순절 사랑의 헌금에 관한 취지서

2008년 사순절 사랑의 헌금

사순절부터 부활절에 걸친 3개월간에 이르는 긴 계절의 테마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파스카를 기념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의 40일을 보내신 것을 원형으로 삼고 있으며, 이 시기는 예비자뿐만이 아닌,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도록 불림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전통적으로 권고되어 왔던 회개의 방법으로는 “기도, 단식, 자선”이 있습니다만, 현대에는 “기도, 절제, 사랑의 실천”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우리들은 다시 마음을 하느님께로 돌리고, 또한 고통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일본의 주교단은, 매년 이 사순절의 정신을 소중히 여겨, 일본 전체 가톨릭 교회로서 세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같이 느끼며, 한 사람 한사람이 가능한 범위에서 가진 것을 나누기를 요청하고 있는 바입니다.

카리타스 재팬이 이 사순절 헌금의 협조요청과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봉헌된 헌금은 긴급재해구조뿐만이 아니라, 난민이나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돕는데 쓰여지고, 또한 소수민족의 어린이들의 교육지원 등, 장기적인 시점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지원에 사용됩니다.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며, 이 사순절을 사랑과 기도 안에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2008년 2월 6일 재의 수요일

카리타스 재팬 책임주교 달치시오 키쿠치 코우 주교
담당주교 야고보 코우다 카즈오 주교